

천안함 사태 2년 맞는  
순천·고흥 유족 표정

“젊은이만 보면 아들 같아 가슴 시러”

“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 상민이가 키가 컸는데, 키 큰 애들의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시러와...”

나보내지 못하겠어. 어찌 잊겠어. 상민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마저 충격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점점 잊히고 있는데 말이야. 부모님은 물어

북, 붓 그리고 상민이가 그렸던 그림들을 소중하게 보관하며 아들에게 못해줬던 점성들을 쏟고 있다. 당시 전역 한달을 앞둔 고 이상민 하사는 백



고 이상민 하사 고 강준 상사

리했다. 강씨는 천안함 사태 2주기를 앞두고 벌써부터 바쁘기만 하다. 그는 오는 25일 고흥을 출발해 3박4일 일정으로 추모식에 참석한 뒤 백령도와 기념관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강씨는 “그렇게 말려도 아내가 아직도 밤만 되면 앨범을 꺼내놓고 눈물을 흘린다”며 “이번에는 준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게 쉬 수 있도록 서해 바다에 아들을 묻고 오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고 이상민 하사·강 준 상사 부친 애절한 마음  
사촌동생 2명도 해군 입대 “형 뉘까지 다할 것”

그는 아직도 지난 2010년 3월을 잊을 수가 없다. ‘아들이 차디찬 바닷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그는 당시 연신 귀를 틀어 막으며 아들의 실종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유난히도 쾌활하고 밝은 성격 탓에 무척이나 의지했던 큰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도 자식은 못 잊는다는 말이 딱 내 신세를 말하는 것 같네.”

이씨는 최근 1년 동안 아들의 앨범을 보며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다. 앨범만 보면 본인이 모르게 흐르는 눈물 때문에 하늘에 있는 아들이 가슴 아파할까봐 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디지털이냐를 꿈꾸던 아들이 사용하던 미술 도구들은 버리지 못했다. 스케치

석대 디자인영상학부에 복학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가슴이 답답해 휴가를 내고 백령도에 다녀왔다. 위령탑을 참배하고 천안함을 둘러보며 가슴속 고민들을 아들에게 털어냈다. 한결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

“상민이가 죽고 사촌 동생들이 해군에 지원입대했어. 그렇게 말했는데 ‘형

이 못다한 뉘까지 하겠다’며 상연(22)이는 동해를, 재성(21)이는 천안함 작전 지역이었던 서해 북방한계선을 지키고 있지. 부디 무사히 군복무를 마쳤으면 해. 상민이가 지켜주겠지.”

고 강 준 상사의 아버지 강현찬(65·고흥군 점암면)씨도 군인들만 보면 아들 생각이 먼저 난다. 당시 강 준 상사는 결혼을 40여일 앞두고 운명을 달

▲천안함 사태=2010년 3월26일 밤 9시22분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천안함(PCC-722)이 어뢰공격으로 침몰해,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된 사건.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3분 해질 18시 46분 달돋이 05시 57분 달질 18시 36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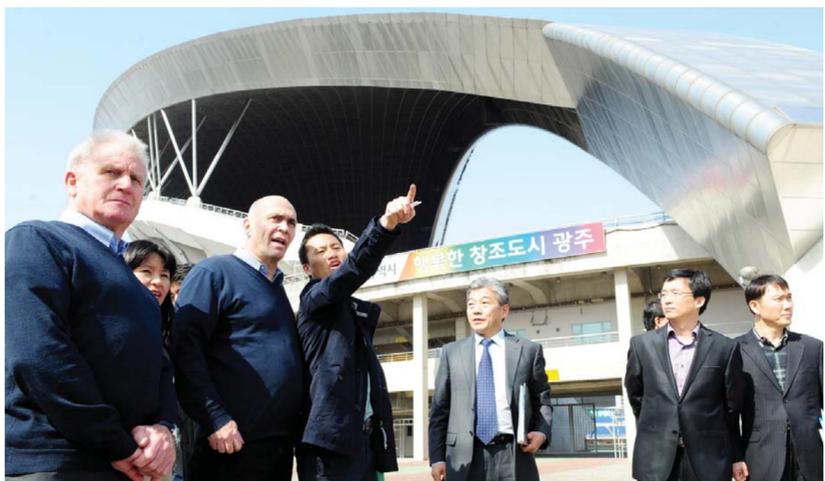
**봄비 와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10~40mm의 비가 내리겠다.

광주	흐림	3/10C
목포	흐림	4/9C
여수	흐림	6/11C
나주	흐림	2/10C
완도	흐림	4/11C
구례	흐림	2/12C
강진	흐림	3/11C
해남	흐림	2/11C
장흥	흐림	2/11C
순천	흐림	5/12C
영광	흐림	3/10C
진도	흐림	3/10C
전주	흐림	3/10C
군산	흐림	3/9C
남원	흐림	1/10C
홍산도	흐림	4/7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8/10	4/8	0/10	0/13	4/16	5/17



광주 U대회 시설 점검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 방문단이 21일 오후 광주 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다. 예력 상트롱 FISU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방문단은 오는 25일까지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청소년 치유 배움 공간  
광주 대안학교 문 연다

광주양지병원 ‘팜푸리 성장학교’ 개원

학교폭력 피해,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의 치유와 배움의 공간인 대안학교가 문을 연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양지병원(원장 김석재)에 따르면 23일 북구 삼각동에 있는 광주양지병원에 정신건강장애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치유교육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팜푸리 성장학교’가 개원한다. 팜푸리는 정신장애인과 평생을 함께 한 가톨릭 성인의 이름이다.

이 학교는 건강상의 문제, 대인관계 장애, 의사소통 어려움,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성장과정에서 갖가지

문제를 겪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동·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과수업을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아동·청소년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팜푸리 성장학교를 (병원)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석재 양지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진정한 교육의 본질은 가르침과 배움이며,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상처받은 아이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의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중국서 올 첫 황사 발생

가시거리 500m 모랫바람

중국에서 지난 20일 올 첫 황사가 발생했다고 신화통신(新華通信)이 전했다.

이날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와 간쑤(甘肅)성 일대에서 강풍과 함께 모랫바람이 일었다고 국가기상국이 밝혔다.

기상국이 이날 모랫바람으로 모래와 먼지가 하늘을 뒤덮어 가

시거리가 500m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중국에서 발생한 올 첫 번째 황사라고 덧붙였다. 강풍과 모랫바람으로 신장지역의 열차 24편의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다.

기상국은 강풍이 앞으로 이틀간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모래와 먼지를 신장 동부, 내이멍구(內蒙古) 쪽으로 몰고 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아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가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싼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송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사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전기세, 난방비걱정 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속 계획중인 고객님께서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안수출! 도 태양열로~**

발전을 시작하면 난방이 무료제공으로 제공됩니다.

주거용 태양광 3KW, 태양열 난방시스템, 태양열 온수시스템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주거용 태양광 한전 연계형 계통설비 (3kw이하~10kw이하)설치계통합니다. **최장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태양광발전(주거용) 설치 후 효과 (월 350kwh 생산 기준)

기준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NAVER** 강남산업 검색

법인등록번호: 409-96-22826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